주가	환율	금리
-7.98	+1.70	+0.01
1,263.35 (코스피지수)	951.70원 (원/달러)	4.87% (3년만기 국고채)

코스닥지수	548.68	(-2.95)
다우(21일)	10,868.38	(-59.72)
나스닥(21일)	2,020.39	(-19.03)
닛케이	14,794.50	(-26.76)
엔-달러 환율(도쿄 17:00기준)	116.60엔	(+0.45)
유로 달러 환율	1.2702달러	(+0.55)
3년만기 회사채	5.17%	(+0.01)
콜금리	4.23%	(+0.06)

치솟는 유가

광주·전남 제조업 목조른다

상의, 100개업체 고유가 영향 설문

기업들 78% "배럴당 80달러면 조업 중단"

채산성 못버틸 수준까지 악화…유류세 인하가 살길

지난 14일 국제유가가 71.96달러(두바이유 기준)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지역기업들의 채산성 악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국제유가가 80달러를 넘어설 경우 상당수 기업들은 조업중단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상공회의소(회장 직무대행 전도영)가 최근 광주지역 10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고유가에 따른 기업영향 및 향후 전망'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78.4%가 조업을 중단해야 할 유가수준은 '80달러 미만'이라고 밝혔다.

조업중단 유가수준이 '70달러 이하'라고 응답한 업체는 27.0%, 71~80달러는 51.4%였다. 81~90달러는 10.8%, 91~100달러는 8.1%, 100달러 이상은 2.7%에 불과했다.

지역기업들은 올해 하반기 평균유가를 69.3달러, 연중 최고치를 75.8달러로 예상했다. 그러나 응답업체의 51.9%가 100달러를 넘길 수 도 있다고 전망했다.

올 상반기 중 지역기업들의 유가상승에 따른 원가상승 정도는 1~10%(44.8%)가 가장 많았으며 11~20%(28.3%), 21~30%(13.5%), 불변(10.4%) 등 순이었다. 원가상승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것은 원자재·부재료비(62.0%), 물류운송비(22.8%)로 조사됐다.

유가상승에 따른 원가상승분을 고려했을 때 지역기업들의 채산성 악화정도는 1~10%(45.6%), 11~20%(25.3%) 등으로 70.9%가 채산성 악화를 전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기업들의 고유가 대책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유가 대책마련 여부에 대해 53.1%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 응답했고, '대책을 시행중(21.0%)'이거나 '대책을 실시할 계획(25.9%)'이라고 밝혔다.

기업들이 시행중이거나 마련중인 고유가 대책은 ▲에너지절약 캠페인(22.2%) ▲제품단가 조정(21.1%) ▲에너절약시설 도입 등 효율성 강화(15.6%) 순이었다.

이와 함께 지역기업들은 고유가 대응을 위해 정부가 ▲유류세 인하 등 민간부문 부담경감(31.6%) ▲대체에너지 개발 등 에너지 투자확대(21.1%) ▲해외자원개발과 에너지원 확보를 위한 자원외교 강화(18.0%) ▲석유비축량 확충 등 위기대응능력 제고(15.0%)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중동정세의 불안으로 유가가 고공행진을 지속하면서 심리적으로는 이미 초고유가 시대에 접어든 상황"이라며 "지역기업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생산프로세스 혁신과 에너지절감 노력을 강화하고, 제품 고부가가치화 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배럴당(1배럴=158.9ℓ) 두바이유는 18일 70.97달러, 19일 68.95달러, 20일 68.62달러, 21일 68.51달러로 완만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통계청-광양시 지역통계발전 협력 체결

통계청과 광양시는 24일 광주전남지방통계청 순천출장소에서 개소식을 갖고 '지역통계 개발 협력을 위한 약정서'를 체결하는 등 지역통계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서 양 기관은 지역통계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계업무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한편 지역통계 업무의 개발과 공동조사, 품질관리 등에 대해 적극 협력키로했다. 순천시 매곡동에 위치한 신청사는 대지 431평, 지상 3층 규모로 11억1천9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전남동부지역의 사업체 및 가구부문 등 24종의 통계조사를 담당한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aT, 농산물 수출업체 환변동보험 지원

aT(농수산물유통공사) 광주·전남지사(지사장 신광수)는 지속적인 환율하락으로 농산물 수출업체의 수출채산성이 악화됨에 따라 안정적인 농산물 수출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환변동보험 가입 및 환수이익금을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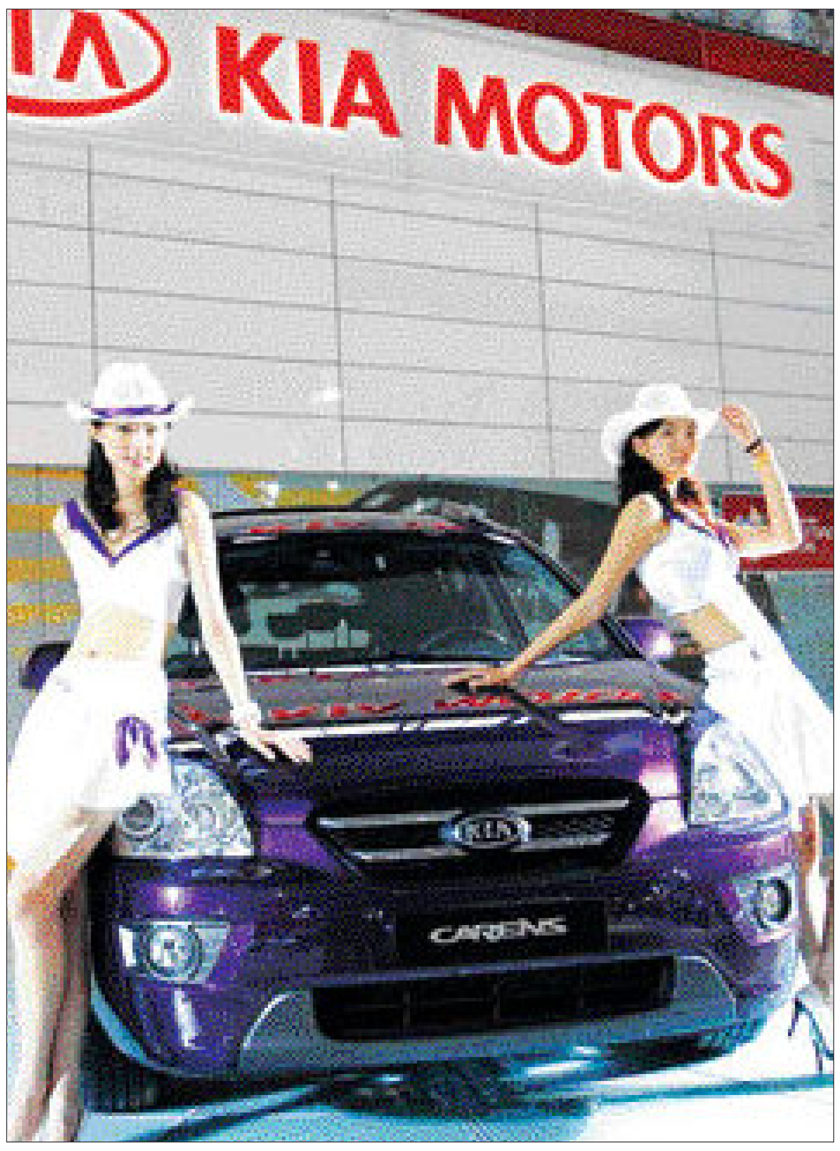
aT는 농산물 수출업체가 한국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에 가입하면 업체당 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최근 환율 상승시 발생하는 이익금을 한국수출보험공사에서 환수함에 따라 농산물 수출업체가 환변동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점을 고려, 환차익 이익금 환수분도 500만원까지 신규 지원한다.

환변동보험 가입 지원대상 업체는 aT로부터 수출물류비를 지원받는 업체에 한하며, 환수 이익금 지원대상 업체는 현재 수출물류비를 지원받고 환변동보험에 가입한 업체로 7~12월 지원한다.

관심이 있는 농산물 수출업체는 aT홈페이지 (http://www.at.or.kr 공지사항)를 참조하고, 환변동가입 및 환수이익금 납부 후 광주전남지사(수출유통팀 062-944-4747)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기아차, 중국서 뉴카렌스 신차발표회



기아자동차㈜는 24일 중국 광저우(廣州) 국제전시회장에서 열린 '2006 광저우 국제모터쇼'에서 '뉴카렌스'의 중국 현지 신차발표회를 개최했다. 기아는 24일부터 31일까지 광저우에서 열리는 '2006 광저우 국제모터쇼'에 382평의 전시관을 확보하고 뉴카렌스, 쏘렌토 등 총 12대를 출품했다. 〈기아차 제공〉

박 용 순 농협전남지역본부장 취임 1주년

1사1촌 자매결연 1,700여건 성사

농산물 지역별 상품화로 수익낼 것

"앞으로도 새농촌 새농협운동 및 농촌사랑운동 확산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난 3일로 취임 1주년을 맞은 박용순 농협전남지역본부장은 "경쟁력 있는 농산물 생산·판매를 통해 농가소득을 지지하고, 농협을 지역종합센터로 바꾸기 위해 약 6만5천여㎞를 누빈 것 같다"고 소회를 밝혔다.

취임 이후 박 본부장은 일선조합의 자립경영기반 구축에 역점을 두고 통폐합을 추진한 결과 196개였던 회원조합을 167개로 줄였다.

또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1사1촌 자매결연도 1천700여건이나 성사시켜 도·농이 하나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도·농간의 관계가 기업이 농촌을 일방적으로 돕는 게 아니라 농촌도 도시민에게 어메니티(Amenity·농촌다움) 자원을 제공하고 자생력을 기르는 쪽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게 박 본부장의 생각이다.

특히 수입쌀 시판과 관련, 연초부터 전남쌀 판매에 총력을 기울였다. 지난 7일 수도권 롯데마트 10개점에서 전남농협쌀 판촉전을 개최, 1만6천여포(금액 6억원)를 판매했고 수도권 롯데마트 10개점에 전남쌀 신규입점 약정을 체결하기도 했다.

박 본부장은 "조만간 지역본부 내에 농산물 연합마케팅을 주도하는 태스크포스를 신설, 우수농산물을 지역별로 상품화하는 작업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선 도내에서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나주연합사업단을 지자체협력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추진하고 4개 시군에 연합사업단을 집중 육성한다는 복안이다.

이밖에 ▲음식점 원산지 자율표시운동 확산 ▲농협계통사무소에 농산물원산지부정유통신고센터, 친환경농산물 판매코너 설치 ▲계통판매장 위생점검·교육 등 수입농산물에 대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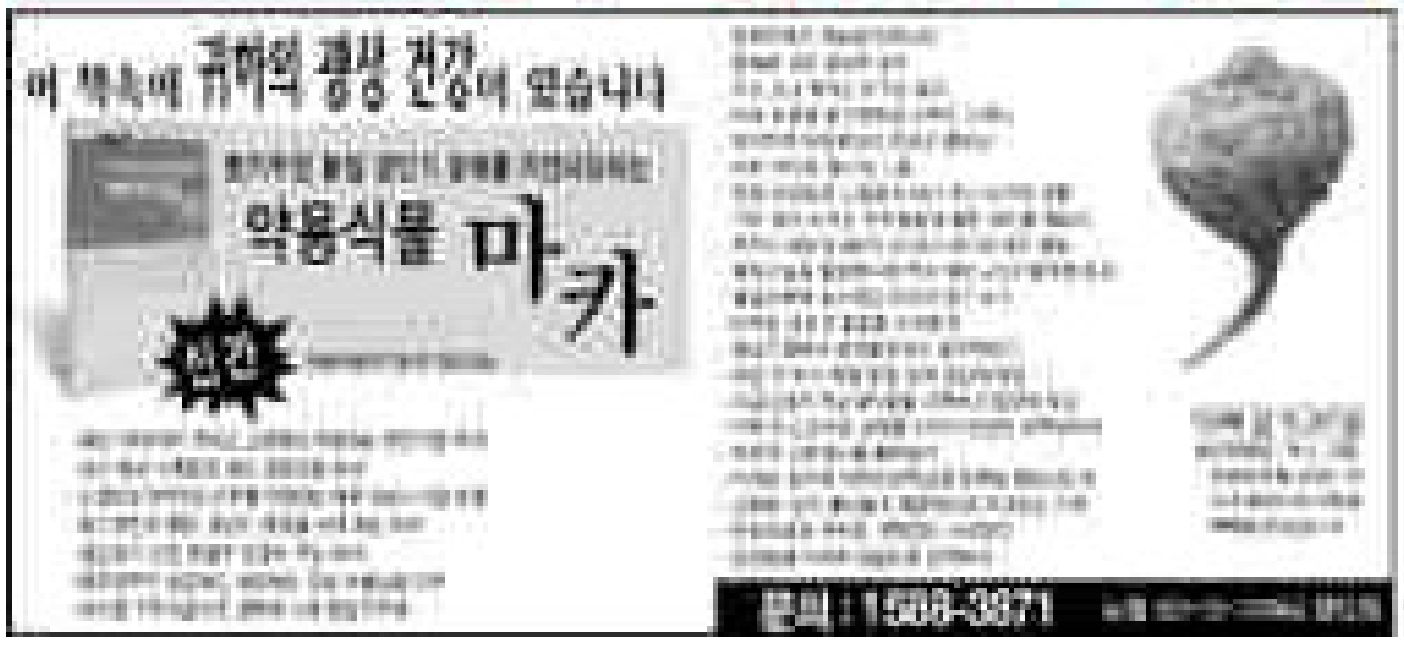
/이종태기자 jtlee@

국세청 홈택스 방문 1억명 돌파

국세청(청장 전군표)이 운영하는 홈택스(www.hometax.go.kr) 방문자수가 1억명을 돌파했다.

국세청은 지난 20일 홈택스 홈페이지 방문자수 1억명 돌파를 기념해 1억번째 방문자에게 노트북을 증정했고, 앞뒤 방문자 2명씩에게도 소정의 경품을 지급했다.

최근 1년 동안 홈택스 방문자수가 가장 많았던 날은 올 부가세 신고기한일인 1월25일 52만3천716명이었고, 올 일평균 방문자 수는 10만9천여명에 달했다.

홈택스는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없이 인터넷으로 국세의 신고·고지·납부·민원 등 전 과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2002년 4월 개통된 이후 3년째인 2005년 2월 5천만명이 방문한데 이어 불과 1년 5개월 경과한 2006년 7월 방문자수 1억명을 돌파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